

영국의 공영방송인 **BBC**는 몇 년전부터 한국의 교육시스템, 그리고 교육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2016년 11월 **BBC**는 영국 학생들을 실제로 한국 고등학교에 교환학생과 비슷한 개념으로 직접 보낸 후 한국 학생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‘school swap Korean Style’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. 이 방송에서 영국 학생 3명 토미, 이완, 사라는 한국 강남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.

방송과 기사를 보면 이 세 학생들은 한국의 엄청나게 긴 수업 시간에 대해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. 오전 7시 50분에 수업이 시작해서 4시 20분까지 긴 하루가 지속되고 또 수업 이후에도 자율 학습과 보충학습을 거의 10시까지 하는 것이 충격적이었다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. **BBC**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전하며 한국인들이 근명성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기사에는 세 학생들이 한국 학교에서 배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, 여기서 이완은 “한국 시스템에서 배워야 할 한 가지는 한국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것이다”라며 “교사를 존경하는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만큼 이런 부분을 배워야 할 것 같다”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

하지만 해당 기사와 방송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것, 암기 중심의 교육, 그리고 부모님들의 엄청난 교육열, 비싼 학원비 등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. **BBC** 프로그램을 마친 후 소감에서 토미는 “빠르게 많은 정보를 배우고 외우는 것은 국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지만 영국 학생들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한국 학생들보다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다”며 “왜냐하면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사라는 “한국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어 특히 여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”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